

# 2000년 1월 1일 가상 스토리

---

맹 철 현

---

## 제 1 화 2000년 1월 1일 0시 제야의 종소리는 울리다!

김인수씨는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는 기쁨에 젖어 오늘은 큰아들 가족을 데리고 보신각 타종소리를 듣기 위해 종로 1가에 나와 인파에 묻혀서 타종소리를 듣는다. 텅잉잉~~~텅잉잉~~. 와! 와! 타종소리에 맞추어 군중들은 소리를 지른다. 해뻐 뉴이어! 해뻐 뉴센투리! 2000년 만세! 2000년 만세!

실로 김인수씨는 자기가 2000년까지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2000년을 맞이하게 되니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다. 나이 80에 2000년을 맞이하여 큰아들네랑 같이 나왔는데 일찍 가버린 아내 생

각을 하니 더 눈물이 쏟아진다. 아내와 같이 이 종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 눈물을 거두고, 아들 내외의 손을 잡고 축하한다. 손자 내외의 손도 잡는다. 그리고 증손녀의 머리도 쓰다듬는다. 축하한다. 이제 너희들의 세기가 다가 왔다. 열심히 성실히 살 아다오.

김인수씨 가족은 인파를 헤치고 나와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뺀다. 먼저 아들네 식구 차가 앞서고, 그 다음에 손자네 차가 뒤를 따른다. 고려대학 뒷편에 작은 아들네에 모두 모이기로 했기에 종로 3가 쪽으로 차 머리를 돌리었다.

그런데 이게 어인 일인가? 모든 교통신호가 죽어서 도로는 차들로 뒤엉켜 난리가 났다. 아니? 2000년 1월 1일부터 또 교통지옥이 시작 되는가? 도저히 약속된 시간에 집에 도착할 것 같지않아 종로 5가에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큰아들이 둘째네집에 전화를 한다. 아 니 이걸 또 웬 일인가? 핸드폰도 불통이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보아 도 그곳 또한 불통이다.

이 시간 경찰청 교통관제센터에는 담당자들이 컴퓨터가 작동을 안해서 허둥지둥 한다.

또 각 전화국마다 모든 교환기가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우왕좌왕 하며 직원들이 교환기에 매달리어 끙끙거린다.

## 제 2 화 작동을 멈추다

교통관제센터의 허경장은 컴퓨터의 도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그가 숙직실에 있다가 불려나와 컴퓨터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전원을 다시 넣고 가동 스위치를 누른다. 컴퓨터가 다시 움직이며 화면에 “날자를 입력하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내보낸다. 허경장은 늘 하던대로 00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한다. 입력하자마자 컴퓨터가 다시 멈추며 작동을 안한다. 아이쿠! 그것이구나! 2000년을 이 컴퓨터가 00년으로 알고 계산을 잘못하여 처리를 못하는구나. 허경장은 그 때 서야 2년 전에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열심히 2000년 문제를 강조하며, 시스템을 잘 점검하라고 하던 생각을 한다.

그때는 설마 교통관제시스템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오!이를 어쩐다?그는 모든 프로그래머들을 불러 내려고 전화를 짚어 든다. 어! 전화기도 작동을 안는다. 이를 어쩐다?정말 난감한 허경장은 소파에 털썩 주저 앉으며 고칠 방법을 생각한다.

광화문 전화국의 나기사는 교환기 앞에서 짹짹 메며, 교환기를 꺾다가 켜고, 안되니 다시 꺾다가 켜고, 그래도 안되니 뒷쪽 패널을 열고 스위치들과 디스플레이정보를 점검한다. 날자를 디스플레이하는 곳을 보니 “00-01-01”이라고 되어 있었다. 년도가 “00”이라서 그러냐 그는 “99”라고 년도를 다시 셋트해 본다. 교환기가 정상으로 가동이 시작한다. 아하!2000년 이 “00”으로 셋트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나기사는 다시 날자를 “00-01-01”이라 다시 정상으로 셋트 해 본다. 교환기가 다시 멈춘다. 음!2000년 문제구나. 이를 어찌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보아야 한다?우선 보고를 하자하고 숙직 책임자인 오과장에게 보고한다.

### 제 3 화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은행에 다니는 서지영씨는 1999년 12월 31일 밤 11시에 도곡동의 “도곡장로교회”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새해에는 큰 소망을 주시고 결혼을 꼭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 2000년 1월 1일 1시이었다.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약혼자 조진석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렇게 손 잡고 한없이 걸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커피 한잔이 생각나서 커피숍에 나란히 앉는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그들은 일어나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든다. 그때 조진석이 “아! 참!” 나 돈을 좀 찾아야해 하며 365일 코너로 간다.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 가서 현금자동출금기에 카드를 넣고 금액을 누른다. 한참을 기다려도 돈은 나오지 않는다. 어찌된 일이야?그들은 결국 돈을 찾지 못하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이때 “희망은행” 전산센터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틀림없이 프로그램은 2000년 문제를 모두 수정 했는데 왜 현금자동출금기에서 돈을 못 뺀다고 아우성이 난 것일까?통신장치를 들여다 보아도 전혀

데이타가 들어 오지를 않는다.

2000년 1월 1일 오전 10시 전산실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한다. 그때 2000년 대책반의 석대리가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서 2000년 문제는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자동화 기기 모두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 강사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아! 혹시 현금자동출금기가 2000년의 00년을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2년 전에 2000년 세미나에서 강사가 말한 것 같아요” 그 때서야 그들은 대책을 숙의 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설마 했는데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이를 어찌한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